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우리에게는 독립기념일이 없다

정 양
우석대 문예창작과 명예교수·시인

우리에게 독립은 익숙한 말이다. 독립협회도, 독립문도, 독립신문도, 독립군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을 기원하는 의미의 독립이었거나 그 뒤에 생긴 독립군은 마적패로 몰리면서 일제의 토벌 대상이 되었던 군대였다.

대한제국은 백성들의 헌금으로 독립문을 세우고 우리는 그걸 국보로 삼고 있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의 개선문적 성격이 짙은 그 독립문은 대한제국과 함께 일제의 감시와 묵인하에 벌인 조선왕조의 마지막 불꽃놀이였다. 그것들은 조선왕조의 마지막 왕비를 끔찍하게 시해했던 일제가 들끓는 국제적 여론에 몰리어 시혜적으로 베푼 잔치였던 셈이다.

사무라이들을 동원하여 조선의 왕비를 시해한 사건은 한반도를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 일제가 저지른 만행 중 으뜸가는 원죄다. 일제는 그 흔적을 지우려고 왕비의 주검을 현장에서 화장해 버렸고, 조선왕조는 2년이 넘도록 그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 범인을 처벌한 뒤에야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왕가의 규율 때문이었다. 왕비를 시해한 사무라이들에게는 손도 못 대고 왕비의 주검을 화장할 때 장작더미를 옮겼던 궁인들 세 명을 범인이랍시고 처형했지만 그런 꼼수는 이미 장례의 명분으로는 통하지 않았던 것 같다.

왕비시해 장면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다는 에조(英臧)보고서에는 옷을 벗긴 나신(裸身)의 왕비를 사무라이들이 능욕한 뒤 칼로 찔러 죽이고 화장했다고 적혀 있다. 대한제국은 그렇게 시해당한 왕비를 황후로 승격시켜 장례의 명분으로 삼는다. 능욕당하고 화장당한 왕비는 시신도 없는 황후가 되어 그렇게 장례를 치렀다. 당시의 자객 가쯔이까는 왕비에게 휘둘렀던 칼을 쿠시다 신사에 자랑스럽게 기증했다. 독립을 잃은 식민지의 참극이 어찌 이뿐이었겠는가.

왕비가 시해당한 뒤 대한제국의 친일내각 총리 김홍집은 광화문 네거리에서 격분한 군중에게 맞아죽었다. 안중근 장군의 이토오 히로부미 저격도 왕비 시해사건이 부른 피의 복수였고 황해도 해주의 평범했던 청년 김창수(김구)가 독립운동에 투신한 직접적인 이유도 일제의 왕비 시해 만행 때문이었다. 백범 선생은 일본 군인을 맨주먹으로 타살(打殺)한 뒤 사형을 언도받고 구사일생으로 탈옥하여 임시정부 주석에 취임해서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정한다.

일제의 왕비 시해 만행에 대한 백성들의 분노가 고스란히 응집된 이름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백범 선생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독립이 소원이라고 그의 일지에 썼다.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날, 연합군의 승전기념일, 우리가 광복절이라고도 하는 그 날이 민족의 광복이나 해방이나 독립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흉탄에 쓰러지기 훨씬 전부터 백범 선생은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한 미국은 8월 10일, 그러니까 해방도 되기 전에 미리 38선을 그어 조선의 임시적 분할 점령을 소련에 제안하고 소련은 이를 즉시 수락한다. 국토 분단과 한국전쟁의 단초를 제공한 그 삼팔선은 그러나 임시적 분할선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차세계대전 이후의 냉전구도에 대비한 미국의 면밀한 계획의 결과물이었다.

한국전쟁 후 삼팔선 대신 휴전선이 생기고 그리고 60년 넘도록 우리에게는 아직도 독립기념일이 없다는 것을, 독립은 커녕 해방이 되기도 전에 한반도는 미리 분할 점령부터 당했다는 것을, 명색이 독립국이면서도 독립이라는 흔한 말이 왜 이토록 어려운 숙제인가를 우리는 아직도 침통하게 되새기고 있다. 핵무기에 버금가는 탄저균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땅에서 여러 해 동안 실험해 왔던 미국이 요즘 수시로 군불 지피는 걸 보면 우리나라는 또 천문학적 비용을 감당하면서 아마도 자청하여 사드(THAAD)를 설치할 것만 같다.

의료칼럼

조기발견의 중요성

윤 숙 자
전남대치과병원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교수

70세가 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 치과병원을 찾아오셨다. 아래턱 잇몸 아래쪽이 한 달 전부터 붓고 아프기 시작했지만 참을만 해 참고 있었단다. 하지만, 고름이 나오기 시작해 치과에 갔더니 방사선사진을 찍어보고 더 큰 병원에 가보라고 했다는 것이다.

입 안 임상검사와 방사선 사진검사를 했다. 진단결과는 아래턱 작은 어금니 부위에 치아종(치아성분으로 구성된 양성종양)이 상당히 커져 있고, 치아종을 둘러싸고 낭(물혹)이 생겨 뼈가 얇아지고 팽창해 있으며, 이 부위가 입안에 노출돼 감염이 된 상태였다. 더욱 큰 문제는 치아종의 크기가 너무 크다는 것이었다. 치아종이 아래턱 아래 부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뼈를 거의 다 차지한 상태였다. 감염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치아종과 낭을 제거해야 하는 상황인데, 치아종이 너무 커져 있고 낭에 의해서 뼈가 얇아져 있기 때문에 수술 후 후유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이 분의 경우는 치아종을 10대나 20대에 발견했더라면, 아니면 적어도 지금보다 10년만 더 빨리 발견했어도 이렇게까지는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이 있다. 젊어서 발견했다면 치아종이 그다지 크지 않았을 것이고, 10년만 더 빨리 발견했다면 낭이 함께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나이가 많이 수술에 대한 부담감이 높다는 것도 난감한 문제였다.

치아종은 정상 치아가 발생하는 시기에 함께 발생한다. 정상 치아가 성숙해 모양이 완성되는 동안 치아종도 점차 커지고, 정상 치아의 뿌리가 완성돼 발육이 다 끝나게 되면, 치아종의 성장도 멈추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다. 그러나 어떤 치아종은 이 환자에서와 같이 느리게 지속적으로 크는 경우가 있고, 또한 치아종을 둘러싸고 낭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치아종은 보통 악골의 팽창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단되지 않고 환자가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가 우연히 치과에서 방사선사진을 촬영하고 발견된다. 또 어떤 경우는 치아종이 점차 커지면서 옆에 있는 정상 치아를 밀어 치아가 틀어지기도 하는데, 교정 치료를 받기 위해 방사선사진검사를 했다가 우연히 발견하기도 한다.

치아종은 보통 10대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아마도 그 시기에 젖니(유치) 발거, 충치 치료, 교정 치료 등의 이유로 치과에 방문하여 방사선사진 검사를 받기 때문일 것이다. 치아종을 10대에 발견하는 경우는 치아종의 크기가 아직 작고, 환자의 건강 상태가 좋은 연령대이므로 수술에 대한 부담감도 낮고, 수술 후 합병증도 적다. 10대에 발견한다면 이 환자와 같이 낭이 생기거나 아래턱이 감염되거나 하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치료는 당연히 훨씬 쉬워진다.

낭과 양성종양은 성장 속도가 느리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자라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해주어야 한다.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골이 커가는 것을 호소하며 환자가 병원을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질환이 뼈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환자는 증상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낭과 양성종양의 발견은 빠를수록 치료가 쉬워지고 치료결과도 좋다. 낭과 양성종양 중에서는 치아종과 같이 10대에 흔히 진단될 수 있는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어린 나이이며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치과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

치아종의 경우와 같이 전혀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 조용한 병들이 있다. 영원히 조용히 있으면 좋으련만, 서서히 진행되고 커져서 증상을 일으킬 때 치료하려하면 너무나 힘든 수술이 되고 마는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있다. 대개의 낭, 양성 종양의 경우가 이러한 조용한 병에 해당한다. 이러한 질환들은 치과에서 촬영하는 파노라마 방사선사진 한 장이면 쉽게 발견되는 것들이다.

기 고

광주역-송정역 전철화로 KTX 개통 부작용 해소를

전 덕 영
전남대 교수협의회장

지난 4월 KTX 전용 선로의 완공으로 진정한 호남선 고속철도가 개통되었다. 광주송정에서 서울까지 1시간 50분 정도 걸리므로 종전보다 약 55분 단축된 것이다. 그래서 광주·전남지역 승객도 작년대비 50%정도 급증하였다고 한다. 진작 이런 혜택을 누렸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서둘러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도 있다. 이제는 광주송정에서 광주역까지인 광주선 선로에 더이상 KTX열차가 운행되지 않기 때문에 광주역을 이용하던 시민들의 KTX 접근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점이다.

교통이용량이 많은 전남대학교에서 광주송정까지를 오가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종전 KTX의 경우 광주선 이용시 송정에서 광주역까지 15분 정도 소요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에 견줄만한 적절한 대체 교통수단이 없다. 우선 지하철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전남대에서 양동시장역까지 시내버스를 탄후 환승해야 하므로 번거롭다. 또한 빨리 간다하더라도 53분이나 걸린다. 버스만 타는 경제적인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이동 시간이 많이 걸린다. 광주광역시 버스정보시스템에 의하면 1시간 2분이나 된다. 택시를 이용한다면 소요시간이 줄겠지만, 교통 체증이 있는 시간대는 40분이상 소요되기도 한다. 요금도 KTX가 1만원 정도 인상되었고, 택시 요금이 1만4000원 정도이니 도합 2만4000원 정도나 더 지출된다.

KTX가 빨라졌다지만 지금의 호남선 KTX 체제는 일부 광주시민에게는 대단히 불편하다. 시간도 단축되지 않았고, 비용 부담이 크다. 일차적으로는 교통문제이지만 이제 사회경제적인 불편함이 뒤따를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해결방안이 있는가?

우선은 광주시 북부지역 순환도로를 정비해서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의 접근을 빠르게 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 진출만이 허용되어 있는 용봉IC에 고속도로 진입로를 조속히 신설하여 북부지역 주민이 편리하게 순환도로에 접근하도록 해야한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현재 송정역과 광주역간의 광주선을 전철화 하는 것이다. 수도권 전철 방식이 그 본보기이다. 수도권 지하철 1호선은 수원~용산을 지나는 국철을 전철화하여 지하철과 연결한 것이다. 또한 용산에서 왕십리를 거쳐 청량리를 거쳐가는 경원선의 일부도 경의중앙선으로 수도권 전철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광주역~광주송정 간 광주선 국철을 광주권 전철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지하철을 연계한 전철은 극락강역외에도 중간 역을 더 만들어 활용도를 높이고 장차 전남의 목포, 순천, 그리고 전북의 익산까지도 연계하면 좋을 것이다. 지하철 1호선과 광주선을 연결하게 되면 당장은 광주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고 결국 호남지역 모두 상생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더욱 좋은 방법은 양동시장역을 지나가는 지하철을 1호선을 분기하여 광주역에 연결하고 이를 송정역까지 순환하게 하는 것이다.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지만, 양동시장역과 광주역 사이에 지하철 지선을 신설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광주도심과 광주송정역 간에 교통이 다양해지고 그만큼 지하철 1호선의 활용도도 크게 상승하여 경제성도 좋아질 것이다.

교통은 기간산업이다. 예산소요가 있더라도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시설이 완성되면 편리함과 함께 경제적인 보상도 따른다. KTX 열차까지 잘 다니던 광주선이다. 광주역을 폐쇄하고 철로를 굳이 걷어내야 할 이유는 없다. 위기는 기회가 될수 있다. 광주송정과 광주역간의 기존 선로를 이용한 광주권 전철을 만들면 된다. 기왕이면 지하철 1호선과 광주역을 통해 연결함으로써 더 큰 상승효과를 얻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하면 좋을 것이다. KTX열차가 광주역을 거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광주 시민의 불편함은 하루빨리 해소되어야 한다.

社 說

메르스 퇴치 사투 벌이는 의료진에 응원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최일선에서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의 고통이 말할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이 견디기 힘든 것은 자신들을 향한 외부의 지나친 경계심일 것이다.

이들은 메르스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 치료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영웅' 대접을 받아 마땅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메르스 바이러스를 퍼뜨린 원흉으로 취급받거나 기피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환자 곁에 있을 겁니다." 얼마 전 삼성서울병원 식당 게시판에 적힌 한 간호사의 메시지가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이 메시지는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감동을 낳았다.

"메르스 현장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각오를 밝힌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외과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김현아 간호사의 편지 역시 각박하게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희망과 감동을 안겨 주었다.

어디 이들뿐이겠는가. 대전 건양대 병원의 한 간호사는 메르스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에서 감염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30대 간호사는 심폐소생 중 감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한 시간 넘게 환자 곁에서 사투(死鬪)를 벌였다고 한다.

병원에 남은 의료진은 메르스 감염 의심에 따른 주변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도 남은 환자들을 돌봐야 하는 입장이다. 우주복 같은 방진복은 잠시만 입어도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는데, 병실을 나오면 복도를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또 벗어야 하고, 다시 입고, 벗고…. 그래도 자기 병원에 온 환자는 기어이 살리겠다며 과중한 업무를 견뎌낸다.

메르스 확산을 막고 공포를 걷어낼 수 있는 이들은 최전선에서 사투 중인 의료진들이다. 묵묵히 진료현장을 지키는 이들에 대한 따뜻한 격려와 응원이 필요한 때다.

문화전당 정상 개관 문체부가 적극 나서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한 주무 부처의 상황인식이 안타깝다. 오는 9월 정식 개관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완벽한 개관이 어렵다'는 무책임한 발언이 튀어나왔다. 게다가 화급한 전당 운영 인력 문제는 남 얘기하듯 '주는 대로 받겠다'니 당황스럽기까지 하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16일 지방기자단 간담회에서 "올해 안에는 (문화전당은) 100% 완벽한 개관이 어렵다"며 "지금 이대로 준비하더라도 11월에 80% 정도나 개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언급에는 완벽한 개관이 안 되는 사유나 책임 소재가 빠져 있다.

지난 1년 동안의 전당 개관 준비 일정만 되짚어보면 지연의 중심에는 문체부가 있다. 문체부는 지난 연말부터 전당 운영의 주체와 인력, 국비 지원 문제 등을 결정짓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을 놓고 여당의 힘을 빌려 야당안에 반대했다. 결국 법 개정은 수개월 지연됐고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모든 개관 준비 자체가 늘어진 것이다.

아직도 논의 중인 전당 운영 인력 문제도 완벽한 개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김 장관은 "박혜자 의원이 주장하는 인원과 행자부가 생각하는 인원 차이가 40명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행자부에서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는데 박 의원이 문화전당 운영의 주체자이고 문체부는 중재나 하는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주객이 바뀌어도 한참 뒤바뀌었다. 전당 운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 인원을 한 명이라도 더 받으려고 맨 앞에서 행자부와 줄다리기를 해야 할 문체부가 멀찌감치 떨어져 구경하는 형국이 아니고 무엇인가.

문화전당은 나라에서 짓고 나라에서 관리 운영하는 국립 기관이다. 광주의 자산이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을 이끌 귀중한 인프라다. 문체부는 정녕 이러한 사실을 모른단 말인가.

無 等 鼓

정승 인사

광해군 15년 인조반정을 일으킨 서인들은 군부가 반발하고, 민심이 동요하자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갑자기 임금이 바뀌었다는 소식에 백성들이 혼란스러워 했지만 반정에 성공한 서인들은 간단한 인사 조치로 단 하루 만에 민심을 안정시켰다.

조선 말기 이건창(李建昌)이 지은 붕당(朋黨) 정치사서인 '당의통략'(黨議通略)에는 "이원익이 반정 다음날 한강 북쪽에서 가마를 타고 조정에 들어오니 비로소 인심이 진정됐다"는 구절이 나온다. 반정에 성공한 서인 정권이 자신들의 반대파인 남인의 영수 이원익을 영의정에 올리자 민심이 가라앉았다는 내용이다.

정승 인사 하나가 막힌 정국을 뚫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반정의 당위성마저 부여했다면 과장일까? 그만큼 정승 인사가 중요하다는 방증일 것이다.

반정 세력의 이원익 등용 카드는 현대로 보면 야당 인물을 총리로 선택해 정국의 안정감과 국민의 정권 견제 심리를 충족했다는 점에서 묘수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원익이 명망 있는 인사라는 점에서 더욱 빛난 선택이었다.

이는 광해군과 인조가 이원익을 자신들의 첫 재상으로 선택했다는 사실을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정권 초반이라 개혁적인 사람보다 원로를 임명하는 순탄한 인사를 통해 안정감을 주려는 의도도 있었겠지만, 능력과 경륜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단행하기 어려운 인사였음은 분명하다.

그는 당시로서는 드물게 뛰어난 판단력과 행정 능력, 굳은 신념을 가진 신하였다. 임진왜란 기간 동안 이순신을 변함없이 믿고 옹호한 유일한 대신이었다. 유성룡마저 이순신을 비판할 때도 이원익은 "경상도의 많은 장수들 중에서 이순신이 가장 뛰어나다"면서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인조반정 뒤 광해군을 사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을 때도, 이원익은 자신이 모셨던 주상을 사사한다면 떠날 수밖에 없다고 맞서 광해군의 목숨을 보호하기도 했다. 이원익은 충신이자 소신 있는 신하로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될 만한 사람'이 정승이 된 경우다.

그동안 말도 많았던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오늘 표결에 부쳐진다. 정승 인사 하나로 불안한 정국과 동요하는 민심을 진정시켰던 선인들의 지혜가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는 때이다. /채희종 사회팀장cha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_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경제부 2200-632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FAX 227-9500〉	〈FA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A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